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0. 2. 18. (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안건번호 세계 2020-02-01

1.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에서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Hanyangdoseong, the Old Capital Wall in Seoul) / 이하,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020.1.28.)에서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함(보류)"에 따라,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다. 신청 및 유산 심의 경과

○ 신청 수요 조사

- 대상 : 잠정목록 관련 광역지자체
- 기간 : 2019.10.1 ~ 2019.12.13
- 결과 : 2건 접수

*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잠정목록명 : 한양도성)
* 반구대 암각화(잠정목록명 : 대곡천 암각화군)

○ **한양도성 등재추진 경과**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4.11.4. : 2016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대상 선정
  (2014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 2016.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6.3월～2017.2월 : 현지조사, 추가자료 제출, 이코모스 패널회의 및 당사국 면담
- 2017.3.9. : 이코모스 제2차 패널회의 결과 '등재불가(Not be Inscribed)' 권고 결정

> ○ 등재기준 iii, iv에 대해 유산관리 전통과 건축유형 면에서 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함
>
> ○ 이코모스 제1차 패널에서 권고한 유산구역 확대를 수용하였으나, 여전히 완전성을 입증하고 있지는 못함 (사적지정구역+유실구역을 모두 연결 필요)

- 2017.3.21. : 등재신청 철회 ⇒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중
- 2019.1.24. : 우선등재목록 선정심의 / "보류"
  (2019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 ※다음 내용을 보완한 후, '19년도 하반기 이후 재심의함
>
> 1) 1차 등재 신청 과정에서의 심사 지적사항
> 2) 성곽 현황, 축성기술 등 기초조사
> 3)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
> 4) OUV 명확화
> 5)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 의견

○ **관련 심의사항**

- 2018.4.26 :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심의/ "부결"
  (2018년도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 ※한양도성과의 연속유산으로 검토가 필요함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한양도성」 신청내용(요약)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가) 등재신청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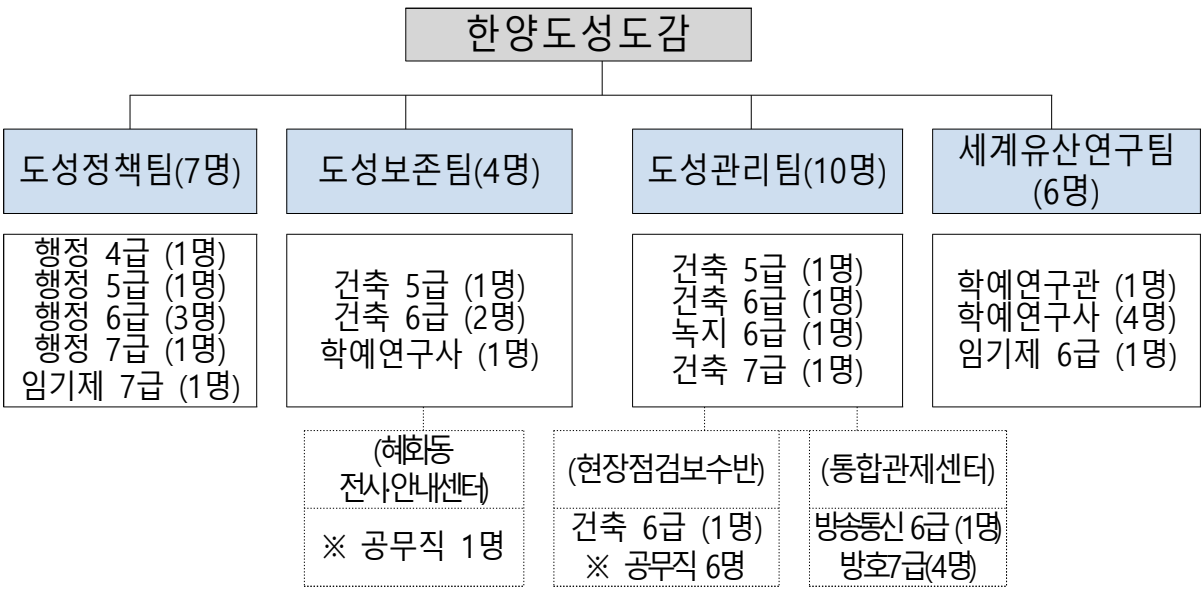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33명)

○ 보존관리에 대한 위원회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12명)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17명)

○ 등재 추진 조직 : 한양도성도감

- 등재추진을 위한 과단위 실무 부서로 2012년 9월 28일부터 한양도성도감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도성정책팀이 총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연구팀은 신청서 준비작업을 진행함. 도성보존팀과 도성관리팀은 유산가치 유지를 위한 정책 이행과 정비사업을 하고 있음
- 구성 : 1과 4팀(1반, 2센터) 27명 (인력, 팀별 주요 업무 : 설명자료 참조)



나)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 연구총괄 및 OUV도출, 비교유산, 역사, 유산설명 및 축성기술, 보호관리, 세계유산분야 외부참여연구원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설정 방향

- 한양도성은 산지와 구릉지, 평지를 따라 축조되었고 총길이는 18.6km임
- 현재 평지 구역은 일제강점기에 도로 및 시가지로 편입되면서 훼철되어 지상부에는 14.5km가 남아 있음
- 신청유산은 지상부에 남아 있는 구간과 지하매장 구간을 유산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주거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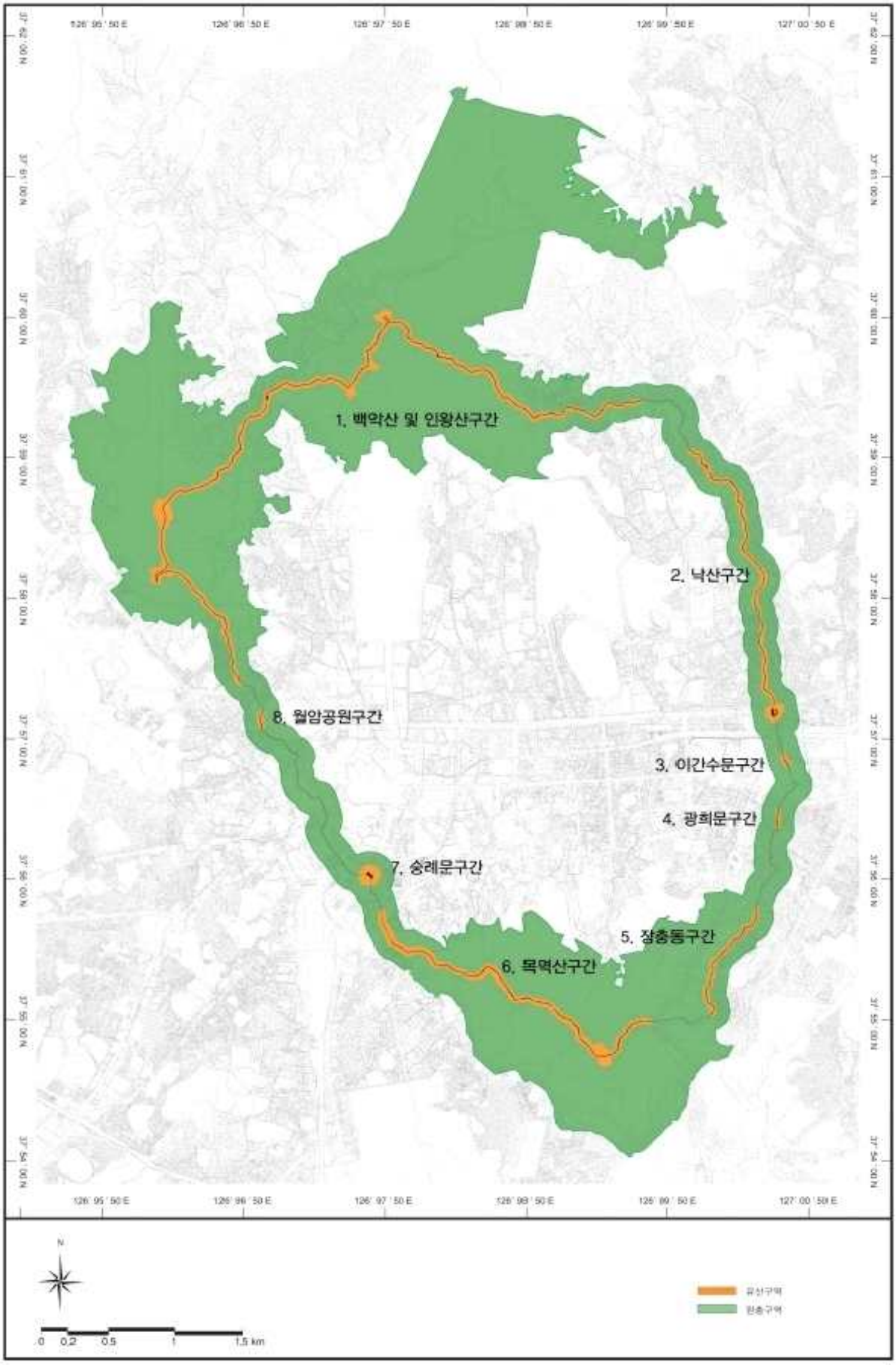
○ 유산구역 현황

- 한양도성은 본래 단일유산이지만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도시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몇 군데 단절 부위가 생겨 형태상 8개 구간으로 분절되었음

[유산구역 현황]

일련번호	구성구간	지역/지구	중앙점좌표	신청구성요소 유산구역면적 (ha)	완충구역면적 (ha)
1	백악산 및 인왕산	종로구,서대문구,성북구	E126°58′35" N37°59′30"	32.84	1052.94(ha)
2	낙산	성북구,종로구	N37°58′81" E127°00′31"	9.13	
3	이간수문	종로구	N37°34′04" E127°00′39"	0.5	
4	광희문	중구	N37°33′50" E127°00′36"	0.48	
5	장충동	중구	N37°33′17" E127°00′19"	3.96	
6	목멱산	중구,용산구	N37°33′05" E126°59′24"	12.65	
7	숭례문	중구	N37°55′98" E126°97′49"	1.93	
8	월암공원	종로구	N37°34′14" E126°57′58"	0.57	
총계	1,115(ha)			62.06(ha)	1052.94(ha)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도면] <구간별 자료 등재신청서(초안) 참조>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및 계획

○ 등재신청기준 : 기준(iii), 기준(iv)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4세기 말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축성된 수도의 성곽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동원체계와 독보적인 관리시스템이 성곽건설에 적용된 특출한 증거이다. 전국의 민정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도성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공사 관리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다. 성돌에 새겨진 수백 개의 각자는 중앙집권적 국가동원체계, 성곽수축기술과 관리시스템의 존재, 변화, 지속을 입증한다. 또한 시기별 여러 성벽형태는 초축 이후 오백여 년 동안 변화해 온 축성기술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물적 증거이다.

- 기준(iv) :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4세기 말 한반도에서 출현한 독특한 성곽유형으로, 산성과 도성이 단일선형의 일체화된 형태로 구현된 한반도 수도성곽의 가장 탁월한 사례이다. 신청유산은 수도의 경계로 구획된 도성과 방어를 위한 산성이 완벽하게 일체화된 독창적인 도성모델로서,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함께 수도를 알리는 상징물이 되었다.

안건번호 세계 2020-02-02

2.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신청 유산명 : 반구대 암각화)>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020.1.28.)에서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함(보류)"에 따라,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다. 신청 및 유산 심의 경과

○ 신청 수요 조사

- 대상 : 잠정목록 관련 광역지자체
- 기간 : 2019.10.1 ~ 2019.12.13
- 결과 : 2건 접수

* 한양도성, 서울의 옛 수도성곽(잠정목록명 : 한양도성)
* 반구대 암각화(잠정목록명 : 대곡천 암각화군)

○ **대곡천 암각화군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암각화)」 신청내용(요약)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울주군 문화관광과	울산박물관
문화유산담당	**문화재담당**	**세계유산등재 학술팀**
·반구대 암각화 보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홍보 및 각종 세미나 개최 ·주민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	·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유지관리 · 반구대암각화 방재 및 재난관련 업무(국가안전대진단, 소방훈련, 안전점검, 무인경비 및 CCTV 관리 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업무 추진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지 발간, 국제교류전 추진 ·세계유산등재 학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학술자문위원회

- 8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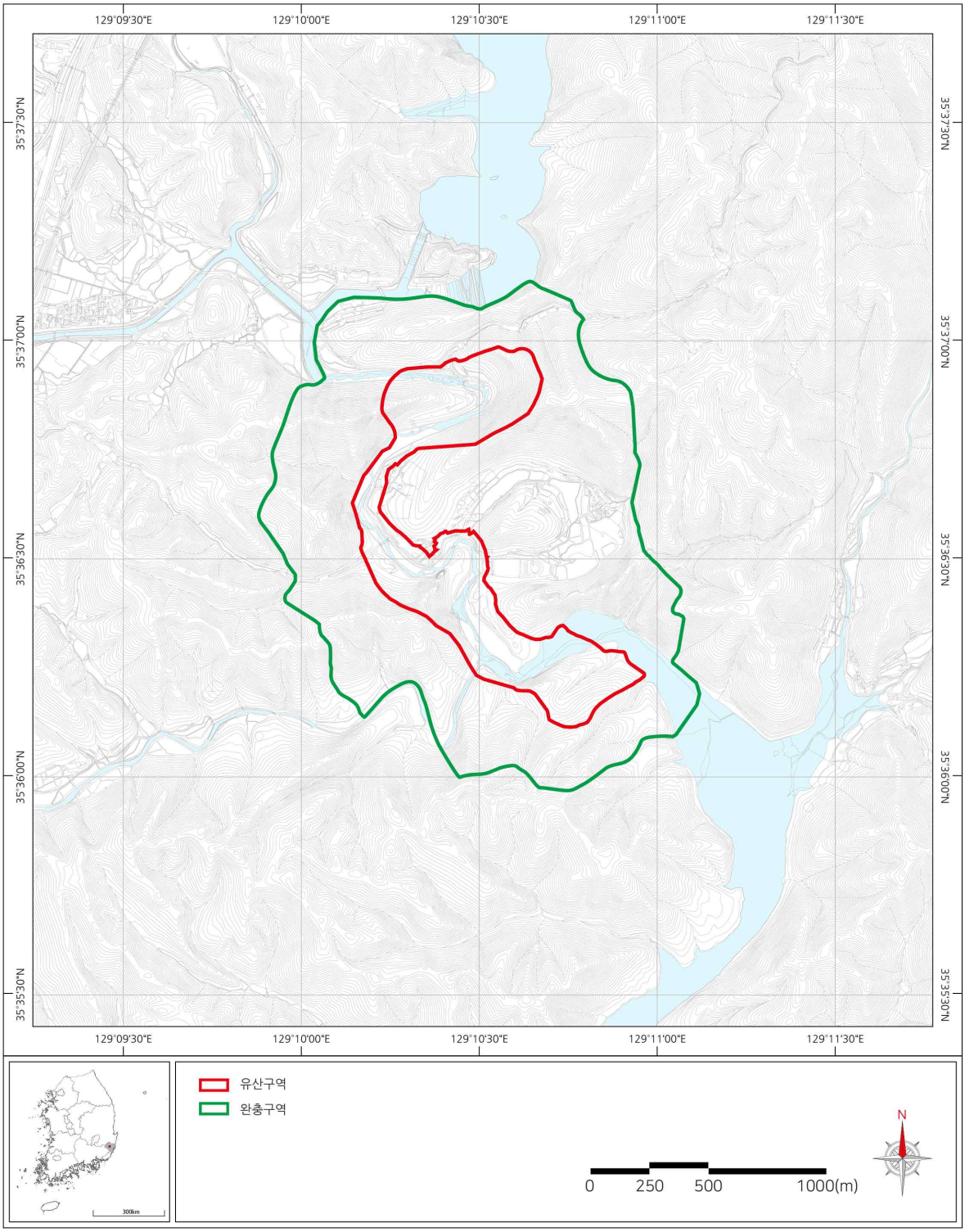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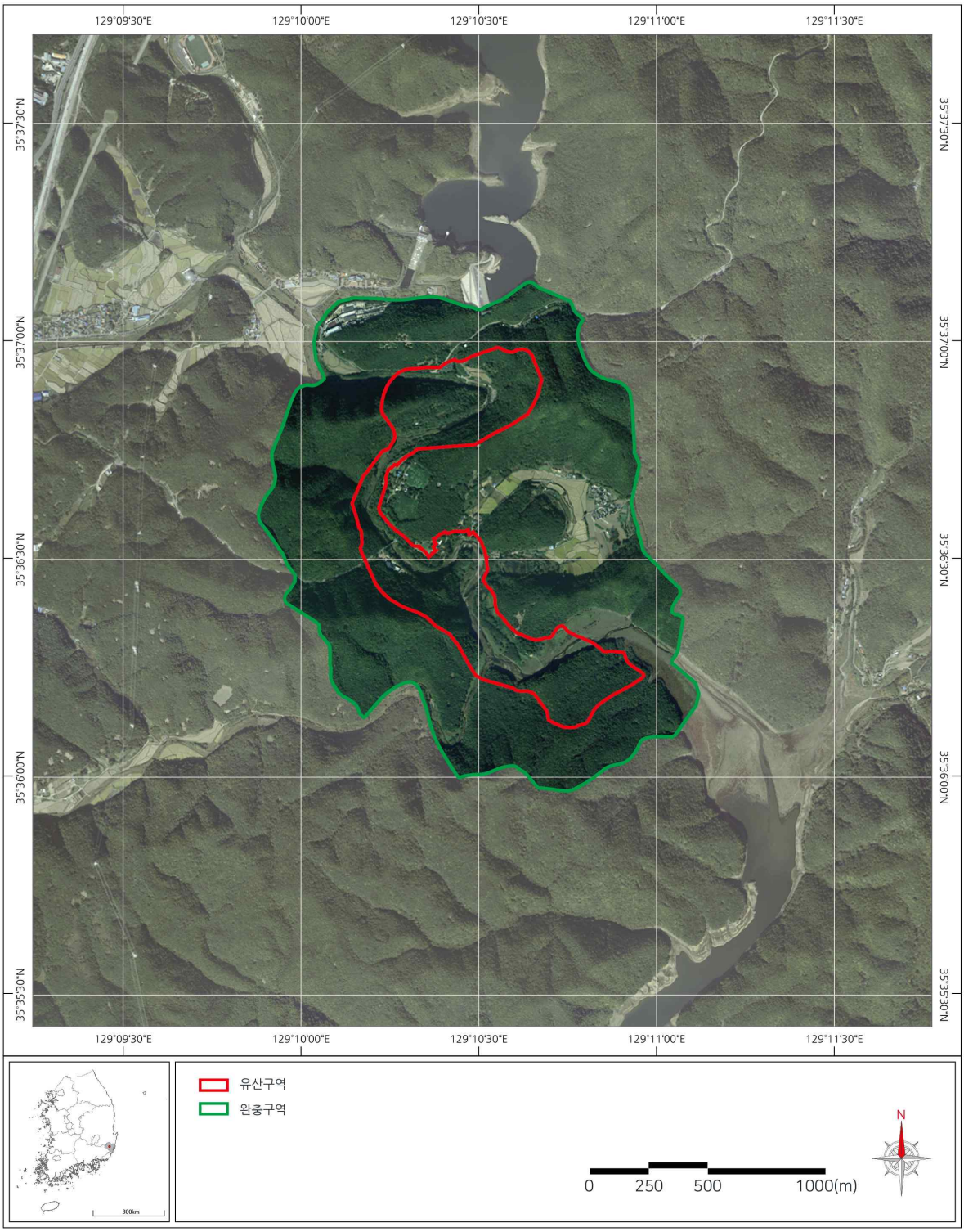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설정 방향

- 등재구역은 대곡리 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 암각화(국보 제147호), 반구대 주변의 인문·자연 경관을 포함하고 있음
- 등재구역 범위는 반구대를 중심으로 대곡천 상류 천전리 암각화에서 하류 대곡리 암각화로 이어지는 계곡에 해당함
-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는 「문화재 보호법」, 그리고 반구서원 유허비가 있는 반구대 명승지는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반구대 명승지는 국가명승지정을 통해 신청유산 전체 구역이 「문화재 보호법」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임
- 완충구역의 경계는 암각화 유적의 특성을 고려해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유산의 조망권역과 수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유산구역 현황]

일련번호	유산명	중앙점좌표	신청구성요소 유산구역면적 (ha)	완충구역면적 (ha)
1	대곡리 암각화	N35°36′14.69" E129°10′41.50"	61.95(ha)	214.94(ha)
2	천전리 암각화	N35°36′51.38" E129°10′30.48"		
3	반구대 명승지	N35°36′30.42" E129°10′26.39"		
총계	276.89(ha)		61.95(ha)	214.94(ha)


129°09'30"E
129°10'00"E
129°10'30"E
129°11'00"E
129°11'30"E
35°37'30"N
35°37'00"N
35°36'30"N
35°36'00"N
35°35'30"N
유산구역
완충구역
0
250
500
1000(m)
N


129°09'30"E
129°10'00"E
129°10'30"E
129°11'00"E
129°11'30"E
35°37'30"N
35°37'00"N
35°36'30"N
35°36'00"N
35°35'30"N
유산구역
완충구역
0
250
500
1000(m)
N
300km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 및 계획

○ 등재신청기준 : 기준(ⅰ), 기준(iii)

- 기준(ⅰ)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하여야 한다.

반구대 대곡리 암각화는 거대한 수직 절벽에 많은 바다와 육지동물, 생활상이 표현된 회화적 조각품이다. 20여 종에 이르는 많은 동물의 생태적 특징과 일정한 구도 하에 새겨진 선사시대 해양수렵 집단의 미적관념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걸작이다.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반구대 대곡리 암각화는 단일 암면에 20여 종에 이르는 많은 육지와 바다 동물이 함께 표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시대 고래 사냥꾼에서 청동기시대 농경민, 신라시대 왕족, 조선시대 선비로 이어지는 시대와 관념을 달리하는 미적 표현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집약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유산이다.